

# Neighbor

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네이버>



SPECIAL THEME  
HOMME

11  
EMBER 2013



SUNGJINFUR

NATURAL PERFECTION®



**철저하게**

**배제된**

**감정 너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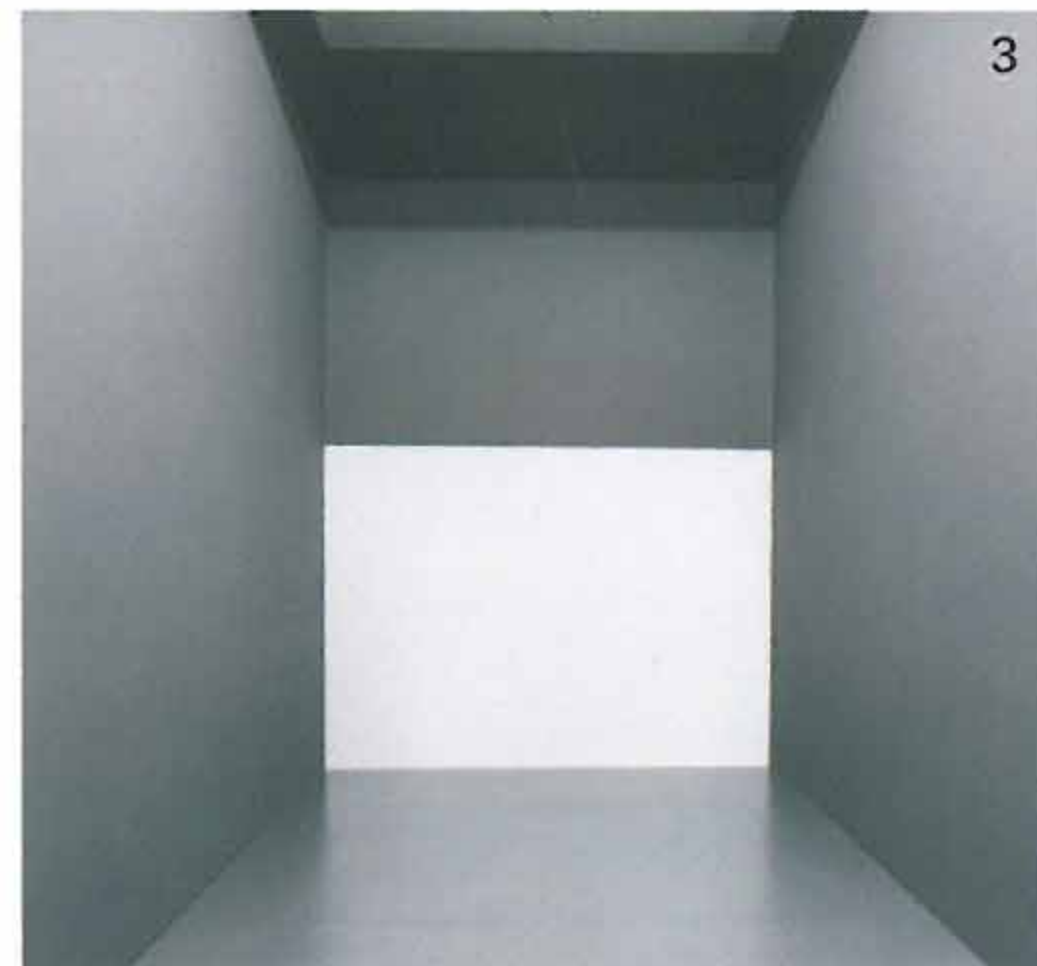
1 Kunstakademie Düsseldorf III 2011, 180x159cm, C-Print, ©Candida Höfer, Köln / VG Bild-Kunst Bonn 2013.

2 Dreischeibenhaus Düsseldorf IV 2011, 180x245cm, C-Print, ©Candida Höfer, Köln / VG Bild-Kunst Bonn 2013.

3 Julia Stoschek Collection Düsseldorf X 2008, 85x82.4cm, Silbergelatine-Print, ©Candida Höfer, Köln / VG Bild-Kunst Bonn 2013.

4 Stahlhof Düsseldorf II 2012, 180x209cm, C-Print, ©Candida Höfer, VG Bild-Kunst, 2013.

5 Dreischeibenhaus Düsseldorf IX 2011, 180x164,4cm, C-Print, ©Candida Höfer, Köln / VG Bild-Kunst Bonn 2013.





Benrather Schloss  
Düsseldorf IV 2011,  
18x246cm, C-Print,  
©Candida Höfer,  
Köln / VG Bild-  
Kunst Bonn 2013.

“내게 ‘뒤셀도르프’는 시작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그 당시의 작업에 국한된 건 아니다. ‘뒤셀도르프’는 오늘의 작업 방향을 보여주는 전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번 전시는 과거와 오늘의 작업을 돌아보는 전시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 뒤셀도르프의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에서 그녀의 개인전 <칸디다 회퍼. 뒤셀도르프>전이 내년 2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40여 년간 뒤셀도르프를 모티프로 작업한 칸디다 회퍼의 작업을 모은 것으로, 그 작품 수만도 70여 점이다. 그렇다면 왜 뒤셀도르프였을까. 칸디다 회퍼는 1976년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였다(그녀의 첫 개인전 역시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에서였다). 결국 뒤셀도르프는 칸디다 회퍼에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인 것이다. 당시 그녀의 담당 교수는 베허 부부였는데 그들은 독일 유형학적 사진의 시초이기도 하다. 베허 부부는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담기지 않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물로서의 사진을 강조했다. 감정이 배제된 중립적인 시선으로 특정한 유형의 피사체를 연이어 찍는 사진 장르인 유형학적 사진은 20세기 후반 세계 사진 시장을 휩쓸었다. 칸디다 회퍼,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스트루스, 토마스 루프, 악셀 휘테... 그들이 바로 유형학적 사진의 모태인 베허 학파의 1세대 작가들이다.

칸디다 회퍼. 그녀가 주목한 피사체는 다름 아닌 도서관, 대성당, 궁전, 극장 등과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건축물 중 왜 도서관, 극장, 대성당이이었을까. 그녀가 주목한 공간은 공공의 장소, 즉 공적인 공간이면서 지식·문화를 전달하는 장소들이다. 천천히 사라져가는 과거의 편린을 과연 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는가. 칸디다 회퍼는 그에 대한 답을 카메라에 담는다. 현대인이 신봉하는 경제 논리가 아닌, 문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 회퍼의 공간은 그리하여 더욱 경건하게 다가온다. 이 경건한 한 장의 사진을 위해 그녀는 이른 오전 혹은 늦은 오후



Malkasten Düsseldorf I 2011, 180x195cm, C-Print,  
©Candida Höfer, Köln / VG Bild-Kunst Bonn 2013.



4



5

의, 텅 빈 공간을 찾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사진 어디에도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얼핏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기도 한다. 치열한 북적임이, 인간이, 그것을 둘러싼 감정이 배제된 고유의 공간. 그녀의 사진은 사람도, 그 어떤 감정도 걸으며 드러나지 않지만 그 때문에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이 사라진 고요와 그 안에 깃든 경건한 아름다움. 회퍼의 사진은 얼핏 회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광 혹은 원래의 공간 조명에 의지해 사진을 찍는다. 보정 작업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녀의 사진 속엔 회화 특유의 묘한 서정이 느껴진다. <뒤셀도르프>전에 포착된 공간 역시 회퍼의 이러한 사진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슈탈호프, 벤라더 성, 드라이 사이벤하우스 등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존재하는 장소들... 칸디다 회퍼는 이러한 공공의 문화적 공간을 통해 뒤셀도르프에 담긴 과거와 현재를 덤덤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아울러 그녀의 첫 번째 사진 시리즈인 터키 시리즈를 비롯해 사진과 인연을 맺게 한 쿤스트 아카데미, 첫 개인전을 연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까지. 어쩌면 이번 전시는 뒤셀도르프를 향한 칸디다 회퍼의 가슴 설레는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그 애뜻함과 경의는 철저히 감춘 채로. III

Editor 설미현 Cooperation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www.smkp.de](http://www.smkp.de))